스마트인재개발원, 노동부 '우수훈련기관' 선정

2026-2030년 국가 인증 유지 가능 기관·성과·현장평가 등 전 영역 우수 지역 특성 맞춘 디지털 전문교육 확대

(사스마트인재개발원이 고용노동부가 주관 하고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수행한 2025년 직 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최고 등급 인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됐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23일 "오는 2026년 1월부 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증평가는 훈련기관의 건전성, 운영 성과,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정부 지원 훈련의 위탁 자격을 결정하는 제도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기관평가·성과평 가·현장평가 전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 하며 최종 인증을 받았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서울·광주·순천·목포 등 4개 지역에서 교육센터를 운영하며 청년·구 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AI·헬스케어·빅데이터·소프트웨어 분야의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로 교육 인프라를 확장해 온 기관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고려할 때,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스마트인재개발원의 교육품질과 신뢰도가 국가적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기관은 인공지능사관학교, K-디지털트 레이닝, 산업구조 변화대응 특화훈련 등 국가·지자체가 추진하는 주요 AI 전문 인재양성 사업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생들은 프로젝트 기반 실습을 통해 해커톤 등 전국 단위 대회에서 성과를 내며 현장 실무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에 '첨단분 원'을 신설해 지역 청년들의 AI 교육 접근성을 보다 강화했다. 이를 통해 광주 AI 산업 생태계 와 연계한 실무형 교육 및 취업 연계 체계를 더 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차준섭 스마트인재개발원 이사장은 "우수훈 련기관 선정은 스마트인재개발원이 구축해 온 교육 품질과 산업 연계 역량이 국가적으로 인정 받은 결과"라며 "서울·광주·순천·목포 등 각 지 역 산업 특성에 맞춘 디지털 전문교육을 확대해 청년 취·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한솔페이퍼텍, 담양쌀 11t 구매

한솔페이퍼텍은 23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최근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로부터 담양쌀 11t (550포)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사진〉

한솔그룹 계열의 골판지 원지 제조기업인 한 솔페이퍼텍은 지난해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 와 '담양쌀 소비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내 식당에서 사용하는 모든 쌀을 담양산 쌀로 전면 전환했다.

최용규 담양군 대전농협 조합장은 "한솔페이 퍼텍이 담양쌀을 꾸준히 소비해줘 지역 농민들 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역 농산물의 소비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솔페이퍼텍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비롯해 지역 초등학교 물품 지원, 마을 발전기금 기탁, 환경정화 활동 등 앞으로도 지 역과 함께 성장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태호기자

로또복권

〈제 1199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16 24 25 30 31 32 /보너스 7		
1등	1,695,609,839	6개숫자일치
2등	64,056,37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3등	1,371,070	5개숫자일치
4등	50,000	4개숫자일치
5등	5,000	3개숫자일치



원화 실질가치 금융위기 이후 최저 23일 서울 중구 한 사설 환전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전을 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지수는 올해 10월 말 기준 89.09(2020년 = 100)로, 한달 전보다 1.44포인트 (p) 하락했다. 이는 올해 3월 말 89.29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8월 말(88.88) 이후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다. /연합뉴스

총량관리 실패…4대 은행 가계대출 창구 닫히나

KB·하나 실행분 접수 제한 신한·우리도 동참 가능성 커

주요 시중은행 다수가 사실상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실패하면서 연말 가계대출 창구가 상당 부분 닫힐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들은 일단 올해 실행분 주택 관련 대출부 터 막고 있는데, 만약 수도권 집값이 기대와 달 리 뚜렷하게 진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초 새 연 간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설정되더라도 쉽게 대 출 문턱을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늘

어난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은 총 7조3천795 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이들 은행이 금융 당국에 제출한 올해 증가액 한도 목표 (5조9천493억원) 보다 24% 많다.

당국은 앞서 6·27 대책 발표 당시 하반기 가계 대출 총량 증가 목표액을 올해 초 설정했던 규 모의 약 절반으로 줄여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했 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축소된 새 수치를 제시 했지만, 11월 하순 현재까지 불어난 가계대출 규모가 이미 목표를 24%나 넘어섰다는 뜻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4개 은행 모두 자체 개별 목표를 초과한 상태다. 초과율은 은행에 따라 낮게는 9.3%에서 높게는 59.5%에 이른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비상 조치로 일단 대출

창구를 속속 닫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미 22일 비대면 채널에서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신규 접수를 막았다.

다른 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 은행 대환대출과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KB 스타 신용대출 I·II'도 같은 날 중단됐다.

대면 창구에서도 24일부터 올해 실행분 주택 구입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하지 않는다. 하나은행 역시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택담

보대출과전세대출신규접수를제한할예정이다. 더구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까지 조만간 가 계대출취급 중단행렬에 동참할 가능성도 커지 고 있다. /연합뉴스

투데이경제



농협광주본부·광주여대 '농촌일손돕기'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23일 "지난 21일 광주여자대학교와 함께 광주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배추 농가를 찾아 수확기 농촌일손돕기 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손돕기에는 농협광주본부 임직원과 광주 여대 대학생 봉사단 등 40여명이 참여해 배추 수확과 상차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며 농촌의 풍 성한 수확을 도왔다.

이번 일손돕기는 농협광주본부가 도농상생 국민운동본부와 협력해 추진하는 다양한 농촌 봉사활동 중 하나로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들 의 적극적인 참여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 와 농업·농촌의 중요성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농협과 광주여대는 올해부터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현장학습과 봉사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안태호기자



농협전남본부,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점검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23일 "최근 2025 년산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수매가 본격화됨에 따라 봉황농협DSC를 방문해 수매 현장을 점검 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황농협DSC 현장은 오전부터 포대벼를 실은 차량이 줄을 이으며 활기를 띠었다. 현장에는 송정훈 봉황농협 조합장, 제해중 나주시지부 지부장 그리고 농협 업무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해 매입절차, 등급 판정과정을 점검하고 농기와 의견을 나눴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천539천t으로 전년대비 1.3% 감소 전망이며 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9% 감소한 67만8천ha 수준으로 예측된다. 공 공비축미 매입 규모는 전국 총 45만t이며 봉황 농협은 DSC 시설을 활용해 수매한 벼의 건조 및 저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태호기자



+